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 미국 기혼여성의 경우

장지연*

이 논문은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전출입(labor market transitions)에 관한 필사의 일련의 연구들 중 일부이다. 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한 통계적 기법을 소개하였다.

상당수의 여성이 일생을 통하여 적어도 한번씩은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노동의 지속과 단절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여성의 노동시장행위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취업사(work history)와 가족형성사를 장기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이용하고 시간 또는 기간이라는 측면을 분석의 틀에 포함시킨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의 지속과 단절을 좀더 원래의 개념에 충실하게 포착하였다.

탐색적 분석방법으로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고용단절과 재취업의 행위가 각각 임신, 출산으로부터의 기간에 따라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의 행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띠고 있지 않으므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에서 '기간의존성'(duration dependence)을 가정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탐색적 분석에서 드러난 노동시장행위의 패턴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족의 수입과 자신의 임금에 대한 경제적 고려 외에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독립과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의지,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 여건과 직업의 특성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구조적 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적 자본론'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1. 서론

성별 임금 격차를 연구해 온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상당 부분이 여성들의 잦은 경력(career)의 단절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여성 노동자들은 경력의 단절로 인해 승진과 소득증대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꺼릴 것이다. 그러나 한편 영유아기는 어머니 또는 다른 성인의 시간과 노력의 집중을 요구하는 시기이며 모자의 보건을 위해서도 산후의 일정기간 동안 여성의 사회적 노동은 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적 관심은 여성이 출산으로 겪게 되는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출산·양육과 사회적 노동이라는 역할들을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을 찾는 데 모아져야 한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는 학문적 연구의 역할은 출산·양육기 여성의 노동시장행위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

여성의 노동시장행위에 관한 기존의 '횡단면 자료 분석'(cross-sectional data analyses)들은 20세기에 걸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음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가 여성의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안정성 같은 경제적 복지 수준(economic well-being)에는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참여율과 경험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Bianchi & Spain, 1986). 요컨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노동시장참여의 쌍봉형 패턴¹⁾은 70년대 말 이래로 사라지고 있다. 비양키와 스페인(Bianchi & Spain, 1986)은 이것을 여성의 노동력 단절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련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간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는 주로 시장경험이 거의 없는 새로운 진입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있는 여성들의 평균경력(tenure)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따라서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가 여성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Heckman & Willis, 1977; Goldin, 1983).

1) 20대 초에 가장 높고, 출산·양육기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가장 낮아졌다가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한 후 이들 여성의 일부가 일터로 돌아옴으로써 다시 높아진다.

여성의 노동행위에 관해서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관찰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개념들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현상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 노동시장경험(labor market experience)의 증가, 그리고 경력 단절(career interruptions)의 감소라는 개념들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는 그 증가분이 새로운 참여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전체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시장경험 기간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평균 경력년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기존 참여자들의 경력년수는 증가할 수 있고 이들의 경력의 단절도 줄어들 수 있다.

일단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면 자료에 근거하여 연령별 노동시장참여율을 살펴보는 방식으로는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든가 경력의 단절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든가 하는 주장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다. 경험년수, 경력의 단절 등의 문제들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전출입에 관한 동태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사에 대한 '장기 추적 자료'(longitudinal data)와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의 방법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동학(dynamics)을 포착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념화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미국의 1979-1993년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자료를 토대로, 기혼여성이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보여주는 노동시장의 전출과 전입 과정을 다음 두 가지 구체적인 연구목적 아래 살펴본다. 첫째는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이 일어날 가능성(전환율(transition rate) 또는 위험률(hazard rate))이 우리가 관찰하는 특정한 기간동안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전이의 시점' 문제에 답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 전환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가족의 수입과 자신의 임금에 대한 경제적 고려 외에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독립과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의지,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 여건과 직업의 특성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구조적 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적자본론의 한계를 짚어 본다.

다음 절에서는 먼저 모델에서 사용될 설명변수들의 이론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한다. 3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될 방법과 모델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출산을 전후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양태와 이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5절에서는 출산 이후의 시기에 노동시장 진입의 메커니즘을 살펴본다. 6절에서는 본 연구의 특징을

논의하고 분석의 결과를 요약한다.

2. 이론적 배경과 모델의 구성

신고전주의적 노동경제학 이론에서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연역적 이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이론은 노동행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시장임금(market wage)과 의증임금(reservation wage)의 관계를 특히 강조한다. 이 이론적 전통은 일관성 있는 이론을 제시하며 폭넓은 경험적 연구들을 축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 역시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이론이 '비용과 이익'(cost and benefit)의 합리적 계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취향과 구조의 제약이라는 측면을 주어진 것으로 파악하여 이론의 주변적 위치에 두어버린 데 있다.

한편 인간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들은 경제학 이론이 가진 주요 결함들을 피하면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학적 접근들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견고한 이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England & Farkas, 1986), 이것은 첫째, 사회학에서 다루는 노동시장론들이 몇 가지의 서로 다른 이론적 전통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대체로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개인의 취향과 구조의 제약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 두 가지 이론적 전통을 통합하여 개인의 합리적 행위와 함께 구조의 제약과 개인의 취향을 포괄하는 하나의 설명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²⁾

여성의 노동시장행위를 설명하는 경제학 또는 인구학의 모델들은 대체로 임금,³⁾

2) 여성의 노동시장행위를 설명하는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토론과 기타 다른 이론들에 대한 논의는 Chang(1997)을 참고할 것.

3) 때로는 잠재적 임금획득능력(earning power)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교육과 노동시장경험이 실제임금을 대치하기도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여부를 일정한 시점에서 정태적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실제 분석의 전략은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제반 특성들을 비교하는 것이 된다. 이때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들의 실제임금(actual wage, 또는 시장임금 market wage)은 관찰할 수가 없다. 이러한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

소득, 혼인상태, 자녀수 등의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채택한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에서는 소득과 자녀수가 여성의 의중임금을 측정하기 위해 쓰이며 이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함으로써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결정된다고 본다. 인구학자들은 혼인상태, 자녀출산 여부, 인종 등에 의해 구분되는 하위집단들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회학 이론들은 노동시장행위를 설명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몇 가지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경험적 분석에 의해 검증이 시도된 적은 적었다. 본 연구가 시도하려는 하나의 통합된 모델, 즉 '구조적 제약'과 '개인의 취향'이라는 요인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계산'에 덧붙인 모델은 다음과 같은 변수집단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1) 경제적인 계산, 2) 사회경제적 배경과 능력, 3) 일에 대한 태도, 4) 노동시장 경험, 5) 지역 노동시장의 조건, 6) 직업의 특성.

1) 경제적인 계산

노동시장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일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기본적으로 일을 그만둠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 즉 손실되는 소득과 가족의 경제적 요구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진입의 결정은 개인의 잠재적 임금획득능력과 가족의 경제적 필요에 달려 있다.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은 이러한 선택을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고 있다.

2) 사회경제적 배경과 능력

여러 가지 획득지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여성의 노동시장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큰 기대를 할수록 자녀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경제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둘째,

접 임금변수를 쓰는 대신 시장임금을 결정한다고 여겨지는 교육, 경력, 나이 등을 이용하는 reduced form model을 쓰거나 일차적으로 시장임금을 추정한 뒤 이차적으로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관찰하는 구조모형을 쓰게 된다.

청소년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화에 대한 이론들은 부모의 생활패턴, 특히 경제활동과 가사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딸들에게 내화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Dewit, 1992).

본 연구는 응답자의 나이 14세 때의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Socio-Economic Index), 형제수를 모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위획득 연구의 그간의 성과는 가족적 배경이 사회경제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교육을 통해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바, 교육, 일에 대한 태도, 직업, 임금 등을 통제하는 우리의 단축형(reduced-form) 모델에서 가족적 배경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Phang, 1993).

3) 태도변수들

일에 대한 내재적인 태도 또는 취향은 개인들간에 서로 다르고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이탈과 진입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태도를 측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과 직접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의 분석모델은 일과 교육에 대한 열망을 직접 물어본 변수 외에도 첫 출산까지 기간과 학력을 취향을 측정하는 행위척도로 사용하였다. '첫 출산까지 기간'(first birth interval)은 결혼부터 초산까지 기간이다. 초산을 미룬다는 것은 교육이나 일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혼부터 초산까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률이 낮아질 것이고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도 빨라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첫 출산까지 기간이 긴 여성은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에서 오는 저축을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부터 오래 떠나 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Greenstein, 1989). 또 첫 출산까지 기간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즉, 만약 직업의 조건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에 적당치 않다면, 여성은 초산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룰 것이다.

경제학적 모델들에서 학력은 인적자본으로 파악되어 시장임금 또는 비취업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측정하는 설명변수로 쓰인다. 그러나 현재의 임금이나 이전의 임금을 통제하고 있는 우리 모델에서 교육은 사회적 노동에 대한 취향을 반영하는 변수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자신의 사회적 경력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

고 있는 여성이라면 교육을 더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학력 자체가 사회적 노동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는 척도일 수 있다. 둘째, 학교는 노동의 근본적인 가치와 성적 평등의 이데올로기를 사회화시키는 제도이다. 여성은 교육, 특히 고등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노동에 대한 애착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초산까지 기간과 교육수준을 태도변수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들은 초산의 시점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선택변수'(choice variable)라고 주장할 것이다. 인구학자들은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 변수에는 '확률적인 부분'(random component)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필자 역시 이 변수가 순수하게 일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 변수가 일정 부분 일에 대한 태도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수준 변수 역시 다른 변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인적자본'(human capital) 변수의 하나로 파악할 것이다. '지위획득이론의 연구자들'(status attainment theorists)은 교육수준이 부분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응답자의 능력을 반영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모델은 응답자의 임금, 사회경제적 배경, 능력변수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은 태도변수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교육, 특히 고등교육은 여성에게 경제적인 독립과 성역할 평등의 가치를 사회화시키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4) 노동시장경험

노동시장 전출입(labor market transitions)을 분석하는 모델에서 과거의 노동시장 경험은 모델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이 적절히 포착해내지 못한 개인들간의 차이(unobserved heterogene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노동시장 경험을 현재의 취업상태를 설명하는 모델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간에 이견이 있다. 어떤 연구자들(Even, 1987; Nakamura & Nakamura, 1985)은 과거의 노동시장 경험을 모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다른 연구자들(Klerman, 1993)은 과거의 노동시장 경험을 현재의 취업상태를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하는 모델은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취향은 그가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과거와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선택을 둘 다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두 결정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는 인과적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취업상태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취향의 차이는 비가시적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우리가 전자의 주장을 따라 과거의 노동시장 경험을 설명변수로 모델에 포함시키는 까닭은 이전의 경험이 현재의 결정에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노동시장 경험은 기술과 지식이라는 형태의 '인적자본'의 축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을 그만둘 때의 손실은 짧은 경력을 가진 여성보다 긴 노동시장 경력을 가진 여성에게 더 크다. 마찬가지로 비취업의 기간은 인적자본의 마모기간(depreciation)이다. 긴 기간동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잃게 되거나 혹은 쓸모없게 되고 만다. 시장경험이 인적자본으로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주느냐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고용주들이 채용·승진·임금에서 경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둘째, 사회적 노동의 경험이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취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시장 경험은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사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게 만든다. 어떤 연구는 저소득의 남편을 둔 여성들이 뜻밖에도 어머니의 역할과 사회적 노동에 대해서 전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들 저소득층 여성들이 대체로 노동시장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Dewit, 1992).

과거의 경제활동 참여기간은 출산과 양육기에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전의 경험에서 얻은 인적자본뿐 아니라 일에 대한 애착은 여성의 취업기간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비경제활동 기간은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출산 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실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즉, 비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적자본의 손실이 커지고 실업자의 경우는 구직을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반면, 구직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의중임금이 낮아져서 취업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또 전체 노동시장 경력과 현재의 직업에서 경력의 영향을 구별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전체 경력이 일반적인 기술과 일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면 현재의 직업에서 경력은 '특정기업에만 적합한'(firm-specific) 기술과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 특정기업에만 적합한 기술은 기업간, 직업간에 쉽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직률을 줄인다. '직업연결론'(Job Matching Theory)은 또 다른 이유에서 현

직에서의 경력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모두 서로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와 일이 잘못 연결되었다면 고용의 초기단계에 그 관계가 깨질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안정될 것이다.

5) 노동시장의 조건

경기순환에 따라 변하는 노동시장의 조건에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추가 노동력’(added worker) 가설은 실업률이 높을 때에는 남편의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취업 포기’(discouraged worker) 가설은 실업률이 높은 시장조건에서는 취업을 희망했던 여성들 중 많은 사람이 구직을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두 가설이 불황 때에 어떤 노동자 집단이⁴⁾ 고실업률의 영향을 더 받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은 어느 한편의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서로의 영향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여성의 취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Dewit, 1992).

실업률은 이직에도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황은 정리해고를 초래하거나 실직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자발적 이직은 줄어들 것이다.

6) 직업의 특성

개인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지만, 일단 한 직업을 선택하고 나면 그 직업이 개인의 행위에 구조적 제약으로 나타나게 된다. 각 직업들은 채용방식, 보수, 승진, 해고 등에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직업이 전제하는 독특한 조건에서 일하게 된다. 직업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입(labor market transition)에

4) 고학력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일차적 노동자군’(primary workers)과 저학력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차적 노동자군’(secondary workers).

영향을 미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 하나는 일을 떠나 있는 시간에 대해 불이익을 가함으로써이고 다른 하나는 일과 가사(양육)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이다(Desai & Waite, 1991). 일을 떠나는 것을 막는 요인들은 '특정기업에만 적합한 기술'과 '경력에 대한 보상'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어떤 전문·관리직은 경력이 단절될 경우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이 따른다. 비서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 경험의 축적에 대한 보상이 적은 일의 경우는 높은 이직률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또 노동조합의 존재를 개인의 노동시장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특성의 하나로 파악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는 응답자의 임금이 임금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여부이다. 따라서 이 변수는 그 직업이 수입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영향을 받는지를 반영한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직업이 가진 구조적 특성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3. 분석방법

1) 원자료와 표본의 선정

이 연구를 위하여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의 1979-1993년도 조사를 이용한다. NLSY는 첫 조사년도인 1979년에 14세에서 21세까지 남녀 12,686명으로 구성된 표본이다. 실제로 노동시장 이탈과정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첫 자녀를 임신한 백인 기혼여성으로 그당시 노동시장 내부에 있던 1,024명의 여성이다. 노동시장 진입과정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첫 자녀를 출산한 백인 기혼여성으로 그당시 노동시장 외부에 있던 880명의 여성이다.

2) 분석모델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이 일어날 가능성을 시간대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전환율 회귀분석'(hazard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1) 이탈모델에서는 첫 자녀 임신 후 노동시장을 떠날 '순간전환율'(instantaneous transition rate),^{5) 2)}

진입모델에서는 첫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에 (재) 진입할 순간전환율이다. 순간전환율이란(이하 전환율이라고 함) 어느 시점까지 사건(event)을 겪지 않은 사람들 (또는 표본들) 중에서 그 시점에 사건을 경험하게 될 순간적인 확률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⁵⁾

$$r_{jk}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_{jk}(t, t + \Delta t)}{\Delta t}$$

여기서 $P_{jk}(t, t + \Delta t)$ 는 t시점에서 j상태에 있다가 $t + \Delta t$ 시점에 k 상태로 변화하게 될 확률이다. 우리 분석모델에서 상태공간(state space), j와 k는 각각 '경제활동상태'(in the labor force)와 '비경제활동상태'(out of the labor force)로 정의된다. 즉, 이탈과정분석은 경제활동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동을 다루고, 진입과정분석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경제활동상태로의 이동을 다룬다.

우리 모델에서 전환율은 기간과⁶⁾ 각 표본의 관찰된 특성들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r(t | x_i(t)) = q(t) \exp(b_{1i}x_{1i}(t) + b_{2i}x_{2i}(t) + \dots)$$

여기서, $x_i(t)$ 는 각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우리 모델에서는 경제적 고려, 가족적 배경, 일에 대한 태도, 노동시장 경험, 노동시장 조건, 직업의 특성 등이 포함된다. $q(t)$ 는 기준시점으로부터 흐른 시간, 즉 기간이 전환율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duration dependence)을 나타낸다. 본 분석의 모델은 $q(t)$ 를 관찰기간 동안 일정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각 분기별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 '분기별 고펜퍼즈 모델'(piecewise Gompertz model)을 사용하였다. 즉, 분기 p내에서 전환율은 다음과 같은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본다.

5) 간단히 '전환율' 또는 '위험률'(hazard rate)이라고도 한다.

6) The limit of a transition probability per unit of time when the time interval is infinitesimal.

7) 이탈모델에서는 임신으로부터 기간, 진입모델에서는 출산으로부터 기간.

$$\log q(t) = a_p + b_{pt}$$

시간이 사건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리 어떠한 가정을 하고 분석에 들어가는 기존의 사건사 분석과는 달리 노동시장 진출입이 일어날 전환율의 시간대별 변화의 패턴을 포착하는 것 자체를 연구 목적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간의존성에 대한 분석은 우리의 연구 주제와 같이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전환율이 시간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다. 즉, 임신 후 노동시장을 이탈할 전환율은 처음에 점차 증가하다가 출산시점에서 최고조에 이르고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관찰기간을 몇 개의 분기로 나누지 않은 모델은 가정부터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 제시한 모델을 이용한 '모수추정 분석'(parametric analysis 또는 가설검증적 분석)에 앞선 탐색적 분석의 단계로서, 변수들의 영향을 모형화하지 않은 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환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생명표(life table) 방식을 이용하여 각 시점별로 생존율의 추정치를 구하고 이것을 전환율로 환산한 후(Cox & Oakes, 1984), 구해진 전환율을 완만한 곡선으로 표시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출입률의 시간대별 유형을 그래프로 얻어낸다(Wu, 1989).

추가적으로, 본 분석에 사용된 모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특성을 지닌다. 첫째, 본 분석은 '단선적 시간 모형'(discrete-time models)보다 더 현실을 잘 반영하는 '지속적 시간 모형'(continuous-time models)을 쓴다. 즉, 우리 모델은 고정된 단위 기간(interval)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지 상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NLSY는 고용과 출산의 기록을 주단위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본 분석이 사용한 모델은 설명변수들의 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time-invariant effect) 가정하는 '비례 모델'(proportional model)이다.⁸⁾ 셋째, 본 분석이 사용한 '전환율 회귀분석'(hazard regression method)(Tuma & Hannan, 1984)은 계수추정과 모델검증에 최대우도추

8) 비례모델에 대비되는 개념은 '비비례(non-proportional) 모델'로서, 위험도를 설명하는 변수의 계수(coefficient)가 관찰기간 동안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영향'(time-varying effect) 혹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계수'(time-varying coefficient)의 개념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time-varying covariat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우측 관찰 중단’(right censoring)의 문제⁹⁾를 적절히 다루는 분석기법이다.

3) 종속변수의 정의와 조작

본 분석의 종속변수는 여성이 ‘첫 자녀 임신 후 노동시장을 이탈할 시간대별 전환율’(duration-specific hazard rate of labor market withdrawal since conception of first child)과 ‘첫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시간대별 전환율’(duration-specific hazard rate of labor market entry since first childbirth)이다. 노동시장 이탈은 경제활동 상태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전환으로 정의하고, 임신 당시 경제활동 상태에 있던 여성들을 임신으로부터 출산 후 2년까지 기간동안 살펴본다. 노동시장 진입은 이와 반대의 상태전환으로 정의하고, 출산 당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던 여성들을 출산시점부터 이후 2년까지 기간동안 관찰한다.

연구의 성격상 첫 자녀의 임신과 출산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NLSY 원자료는 응답자의 모든 자녀의 출산날짜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신한 시점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편의상 초산 날짜의 38주 이전을 임신날짜로 가정하였다.

종속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NLSY의 ‘취업사 자료’(work history data file)가 제공하는 ‘노동력 상태’(labor force status)의 주단위 보고를 이용하였다. 노동시장 이탈모델에서는, 임신 당시 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만을 다루므로 표본에 포함된 모든 여성은 초기 시점에서 노동력 상태변수는 1값을 갖는다. 어떤 이가 관찰 기간 동안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을 겪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이 변수는 0값을 갖게 된다. 만일 어떤 여성이 관찰이 끝나는 시점, 즉 출산 후 2년까지 ‘사건’(event: 경제활동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상태전환)을 겪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우측 관찰 중단’으로 처리된다.

노동시장 진입모델에서는, 출산시점부터 이후 2년까지를 관찰하며 노동력 상태의 전환은 이탈모델과 반대이다. 출산 당시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표본은 초기시점에서 노동력 상태변수의 값은 0이고 노동시장에 진

9) 전환시점(transition timing)을 다룰 때, 일부 여성은 관찰기간내에 사건(event 또는 transitions)을 경험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문제.

입하는 시점에서 1이 된다.

4) 설명변수들의 정의와 조작

본 분석은 종속변수인 노동시장의 이탈과 진입 전환율의 증감을 설명하는 요인들로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학력, 노동시장 경험과 관련된 변수들, 그리고 임금 등 직업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관찰기간 동안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변수를 조작할 경우 (time-varying covariates) 인과관계의 설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혼인상태'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각 모델의 초기시점에서¹⁰⁾ 측정된 값을 적용하였다.

(1) 경제적인 고려를 대표하는 변수들

가족의 경제적 요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과 함께 현재의 혼인상태와 배우자의 학력을 사용하였다. 배우자의 소득과 학력은 상관관계가 클 가능성이 있지만 학력은 미래소득의 안정성을 반영하며 이것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입(labor market transitions)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므로 둘다 모델에 포함시켰다. 노동시장 이탈모델에서는 응답자의 실제 임금을 관찰할 수 있으나 진입모델에서는 그럴 수 없으므로 잠재적 임금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나간 마지막 직업의 임금을 이용하였다.

- 1) 현재의 혼인상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이 기혼여성들이므로 관찰기간중 이혼 또는 사별하였으면 이 변수의 값은 1에서 0으로 바뀐다.
- 2) 배우자의 학력: 배우자의 교육년수.
- 3) 배우자의 소득: 연도별 임금과 사업소득의 합계. Consumer Price Index를 사용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하였다.
- 4) 응답자 자신의 임금: 주당 임금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하였다. 노동시장 이탈모델에서는 임신시점의 임금을 사용하였다. 진입모델에서는 초산

10) 노동시장 이탈모델의 경우는 임신시점, 진입모델의 경우는 출산시점.

당시 노동시장 외부에 있던 여성을 표본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출산 이전 마지막 직업의 임금을 사용하였다. 만약 이 값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가장 인접한 시점의 보고된 값을 찾아 대신 사용하였고 이 값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이후 시점의 값, 표본의 평균값의 순으로 대처하였다.

(2)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응답자의 능력을 측정한 변수들

- 1) 어머니의 학력: 1979년 첫 면접에서 조사한 응답자 어머니의 교육년수.
- 2) 아버지의 사회경제지수(SEI; Socio-Economic Index): 응답자가 14세 때 함께 살던 아버지 또는 다른 남자 어른의 직업을 1970년 던컨(Duncan)의 사회경제지수로 환산하여 만든 변수.
- 3) 형제수: 응답자의 형제수.
- 4) AFQT 점수: 1980년에 NLSY 응답자들은 Armed Service Vocational Aptitude Test(ASVATS)를 치렀다. 일부 선별된 분야의 점수를 모아서 Armed Force Qualifications Tests의 점수로 계산되었다. AFQT 점수는 나이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응답자의 나이별로 표준화하여 얻은 Z score를 사용하였다.

(3) 일에 대한 태도에 관계되는 변수들

일과 교육에 대한 열망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변수도 이들 항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모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대체로 태도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겠으나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 이후의 태도에 미칠 수 있다. 즉 이 태도변수들은 1979년 면접에서 조사된 것이므로 이때 이미 학교 교육을 마쳤든가 노동시장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전의 경험이 교육에 대한 열망과 일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로서, 교육과 교육열망, 교육열망과 사회적 노동에 대한 취향 간에 각각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변수들을 동시에 하나의 모델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 1) 첫 자녀 출산까지 기간(first birth interval): 결혼부터 첫 자녀 출산까지 기간

을 개월 단위로 측정하였다.

- 2) 교육수준: 첫 자녀 임신시점에서 측정된 교육년수. 노동시장 이탈모델뿐 아니라 진입모델에서도 임신시점의 교육년수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젊은 여성의 학력은 임신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3) 교육에 대한 열망: 1979년 면접에서 조사된 것으로, 응답자가 바라는 최고 교육년수.
- 4) 임금노동에 대한 선호도: NLSY는 첫 면접 때, “당신의 나이가 35세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임금노동, 가사, 기타의 세 가지 중에서 임금노동을 선택한 경우에 1값을, 그 밖에는 0을 주었다.

(4) 과거의 노동시장 경험을 측정된 변수들

노동시장 경험은 단순히 일한 시간만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우리의 모델들은 전체 노동시장 경력과 현 직장에서 경력뿐 아니라 경력기간중에서 전일제로 일한 기간의 비율, 직업의 단절횟수, 비취업의 기간 등도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이나 진입 가능성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포함하고 있다.

- 1) 총 노동시장 경력: 1978년 1월 1일 이후의 노동시장에서 모든 경력을 첫 자녀 임신·출산시점에서 계산하여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미만, 2년 미만의 세 범주로 나눈 더미변수의 형태로 모델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이 변수가 종속 변수에 ‘비선형적인 영향’(non-linear effect)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짧은 경력을 가진 여성과 오랜 경력의 여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긴 경험을 가진 여성들간의 연단위의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좌측 관찰이 불가능한’(left-censored)¹¹⁾ 취업사를 가진 여성의 경우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NLSY의 취업사 자료는 1978년 1월 1일 이후의 취업상태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1978년 이전에 일을 시작한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경력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에

11) ‘좌측 관찰 불능’(left-censoring)의 문제는 ‘우측 관찰 불능’(right-censoring)과는 달리 사건사 분석이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제시한 방식으로 범주화하면 1978년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은 대부분 '2년 이상의 경력'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틀린 정보를 이용하는 데서 오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 2) 총 노동시장 경력 중 전일제(full-time) 근무로 취업한 기간의 비율
- 3) 현직(전직)에서 경력: 노동시장 이탈모델에서는 현직에서 경력을, 진입모델에서는 출산 전 마지막 직업에서 경력을 연단위로 측정하였다. 총 노동시장 경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이유로 세 가지 범주의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 4) 현직(전직)의 전일제 근무 여부: 현재 직업이 전일제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5) 노동시장 경력의 단절횟수: 최초로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로 몇 번의 노동시장 이탈을 경험하였는가를 계산한 변수. '좌측 관찰 중단'인 취업사를 가진 여성의 경우는 1978년 1월 1일 이후의 경력 중에서 단절의 횟수를 계산하였다.
- 6) 비취업 기간: 노동시장 진입모델에만 사용된 변수로서, 1978년 이후 비취업 상태로 있었던 주의 총 수. 이 변수는 총 노동시장 경력과 반비례관계를 가질 것이므로 이들 두 변수는 하나의 모델에 함께 사용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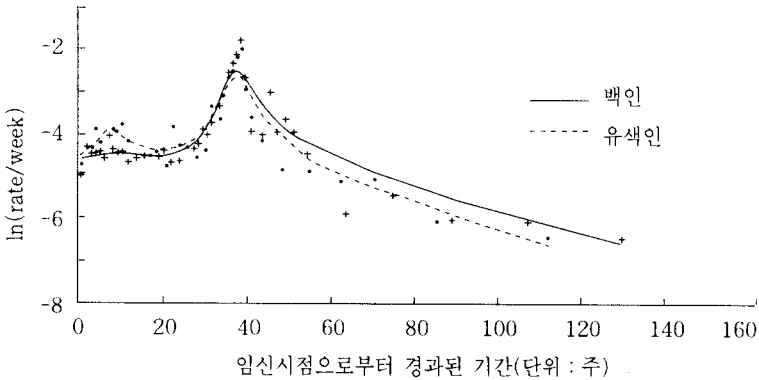
5)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변수

- 1) 실업률: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실업률.
- 6) 직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 1) 직업: 임신 당시의 직업, 출산 이전의 마지막 직업을 4개의 범주로 나누어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 전문·관리직, 판매직·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 2) 노동조합의 영향: 응답자의 임금이 노사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

4. 첫 자녀 임신 후의 노동시장 이탈의 과정

이 절에서는 첫 자녀의 임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기간동안에 여성의 노동시장 내부에서 외부로의 이동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노동시장 이탈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탐색적 분석의¹²⁾ 결과는 <그림1>과 같다. <그림1>은 첫 자녀 임신 후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날 전환율을 백인·유색인의 경우만을 구별하고 다른 변수의 영향은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즉, 여기서 두 곡선은 여성이 관찰기간 동안 노동시장을 떠날 전환율의 평균적인 수준을 시간대별로 보여준다. 백인과 유색인 모두에서 노동시장을 떠날 전환율은 임신시점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출산 직전에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출산시기에 절정에 달하였다가 이후는 점차 감소한다.

<그림1> 첫 자녀 임신 후 노동시장을 이탈할 전환율의 시간대별 추이



이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는 전체 관찰기간을 네 구간—임신으로부터 각각 0~24.5, 25~37.5, 38~59.5, 60~142번째 주—으로 세분하고 각 구간에서 전환율이 선형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곰퍼즈 모델’(Gompertz model)을 적용하였다.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은 <표1>에 제시하였다.

12) 분석기법은 앞 절 3. 2)에서 설명.

〈표1〉 노동시장 이탈모델에서 사용된 설명변수들

	평균(또는 비율)	표준편차
경제적 고려		
현재 혼인상태 (=1)	.93	
배우자의 학력	13.4	2.1
배우자의 소득(ln)	9.4	.80
응답자의 임금(ln)	5.0	.71
가족적 배경		
어머니의 학력	11.8	2.4
아버지의 SEI	38.4	17.4
형제수	3.1	1.9
능력변수		
afqt 점수(sd.)	.51	.73
태도변수		
초산까지 기간	35.3	28.7
응답자의 학력	13.2	2.2
교육열망	14.6	2.2
임금노동 선호도 (=1)	.69	
노동시장 경험		
총경력 0-1	.06	
총경력 1-2	.09	
총경력 2+	.85	
전일제 근무비율	62.3	23.6
현직 재직기간 0-1	.34	
현직 재직기간 1-2	.19	
현직 재직기간 2+	.47	
현직 전일제 근무	.75	
경력 단절횟수	3.5	2.3
노동시장 조건		
실업률	7.5	3.0
직업의 특성		
전문기술직	.28	
사무직·판매직	.48	
생산직	.09	
서비스직	.15	
노조에 의한 임금협상 (=1)	.11	
표본의 수	1024	

〈표2〉는 시간경과의 영향, 즉 '기간의존성'(duration dependence) 외에 설명변수를 각각 하나씩만 포함하는 모델의 계수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는 이론이나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경제적 자원의 가용성의 영향은 경제학 이론이 제시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은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교육수준과 소득의 향상은 응답자의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응답자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지도 모른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과 일 선호도도 이탈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긴 노동시장 경력을 가진 여성은 경력이 짧은 여성보다 관찰기간 동안 낮은 비율로 노동시장을 떠난다. 생산직 여성과 비교할 때, 전문·관리직과 판매직 여성들은 낮은 비율로 노동시장을 떠나고, 서비스직 여성들은 더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을 떠난다.

〈표3〉과 〈표4〉는 각각 '총 노동시장 경력'과 '현 직업의 재직기간'을 과거의 노동시장 경험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한 '전환율 회귀모델'(hazard regression model)을 실행하여 얻은 변수들의 회귀계수들이다. 각각의 표들은 응답자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태도를 대표하는 변수들을 각기 다른 조합으로 이용하여 네 가지 유형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시험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을 동시에 하나의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서이다.

〈표3〉에 따르면, 다른 설명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대표하는 변수들의 계수들은 원래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를 나타낸다. 즉,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은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날 전환율이 더 낮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임금이 100달러 상승할 때마다 노동시장을 이탈할 전환율은 약 $.79 (= \exp(-.24))$ 의 비율로 낮아진다. 남편의 소득이 높아서 가용한 경제적 자원을 많이 가진 여성은 그렇지 못한 여성보다 노동시장을 떠날 전환율이 더 높다. 그러나 우리의 표본이 대표하는 최근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소득이 노동시장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는 그 크기가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도 않다.

응답자의 가족적 배경을 반영하는 변수들도 우리의 '축약형'(reduced-form) 모델

〈표2〉 첫 자녀의 임신 이후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무차 모형의 상관계수

경제적 고려	
현재 혼인상태 (=1)	.41*** (.17)
배우자의 학력	.01 (.01)
배우자의 소득 (ln)	-.17** (.03)
응답자의 임금 (ln)	-.38** (.04)
가족적 배경	
어머니의 학력	-.03* (.01)
아버지의 SEI	-.01** (.0)
형제수	.02 (.02)
능력변수	
afqt 점수 (sd.)	-.24** (.05)
태도변수	
초산까지의 기간	-.01** (.0)
응답자의 학력	-.08** (.01)
교육열망	-.04* (.01)
임금노동 선호도 (=1)	.21** (.07)
노동시장 경험	
총경력 1-2	-.61** (.17)
총경력 2+	-1.12** (.13)
전일제 근무비율	-.01** (.0)
현직 재직 기간 1-2	-.37** (.10)
현직 재직 기간 2+	-.82** (.08)
현직 전일제 근무	-.75** (.08)
경력 단절 회수	.0 (0.2)
노동시장 조건	
실업률	.01 (.01)
직업의 특성	
전문기술직	-.21 (.13)
사무직·판매직	-.03 (.12)
서비스직	.58** (.14)
노조에 의한 임금협상 (=1)	-.29* (.12)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10$, * $p < .05$, ** $p < .01$

〈표3〉 첫 자녀 임신 후 노동시장 이탈과정: 총경력 모델

	모델I		모델II		모델III		모델IV	
	모수 측정치	표준 오차	모수 측정치	표준 오차	모수 측정치	표준 오차	모수 측정치	표준 오차
경제적 고려								
현재 혼인상태	.02	.20	.01	.20	-.01	.20	.0	.20
배우자의 학력	.07**	.02	.06**	.02	.06**	.02	.07**	.02
배우자의 소득	.08	.05	.07	.05	.06	.05	.07	.05
응답자의 임금	.23**	.05	-.24**	.05	-.26**	.05	-.24**	.05
가족적 배경								
어머니의 학력	.0	.02	-.01	.02	.01	.02	.0	.02
아버지의 SEI	-.003	.002	-.004+	.002	-.004+	.002	-.001	.002
형제수	.0	.02	.0	.02	.0	.02	-.0	.02
능력변수								
afqt 점수	-.07	.06	-.11+	0.6	.10+	.06	-.07	.06
태도변수								
초산까지 기간	-.003+	.002	-.003+	.002	.003+	.002	-.003+	.002
응답자의 학력	.05+	.03					-.05+	.03
교육열망			.01	.02				
임금노동 선호도					-.22**	.08	-.22**	.08
노동시장 경험								
총경력 0-1								
총경력 1-2	-.076**	.19	-.076**	.19	-.075**	.19	-.075**	.19
총경력 2+	-.092**	.16	-.094**	.16	-.092**	.16	-.090**	.16
전일제 근무비율	-.004**	.002	-.004*	.002	-.004*	.002	-.090**	.16
경력 단절횟수	.02	.02	.02	.02	.02	.02	.03	.02
노동시장 조건								
실업률	.01	.01	-.01	.01	-.01	.01	-.01	.01
직업의 특성								
생산직								
전문기술직	.03	.15	-.09	.15	.11	.15	-.06	.15
사무직·판매직	-.02	.13	-.04	.13	-.09	.13	-.07	.14
서비스직	.48**	.15	.47**	.15	.41**	.15	.42**	.15
노조에 의한 임금협상								
임금협상	.29*	.12	-.31*	.12	-.32**	.12	-.30*	.12

주: + p < .10, * p < .05, ** p < .01

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도 가족배경 변수가 부분적으로는 다른 변수들, 즉 능력, 교육수준, 일에 대한 태도 등의 변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예로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SEI)와 AFQT 점수는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지 않은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결혼에서 첫 자녀 출산까지 기간은 노동시장 이탈률과 반비례관계(negative relationship)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초산을 뒤로 미루는 여성들이 임신 후에도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영향도 예측했던 바와 같이,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노동시장을 떠날 전환율이 낮다. 첫 면접에서 조사된 임금노동에 대한 선호도도 우리가 관찰하는 시기의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예상했던 대로 노동시장 경험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긴 노동시장 경력을 가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노동시장을 떠날 전환율이 더 낮다. 2년 이상의 총 노동시장 경력을 가진 여성은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여성보다 약 60% ($1 - \exp(-.90) = .60$) 만큼 낮은 전환율로 노동시장을 떠나게 된다. 또, 노동시장에 참여한 기간중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첫 자녀 임신 후 노동시장을 이탈할 전환율이 낮다. 직업의 특성도 여성의 노동시장행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다른 직업의 여성들보다 우리의 관찰기간중에 노동시장을 떠날 전환율이 더 높다. 노동조합의 영향을 받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에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에 제시한 모델은 〈표5〉와 같은 모델인데 단지 '총 노동시장 경력' 변수 대신 '현 직업의 재직기간'을 사용한 점만이 다르다. 현 직업에서 경력 역시 노동시장 이탈률과 반비례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 모델에서 그 밖의 다른 변수들의 계수들도 〈표3〉의 모델의 결과와 비슷하다.

〈표4〉 첫 자녀 임신 이후의 노동시장 이탈모델: 현직 재직기간 모델

	모델I		모델II		모델III		모델IV	
	모수 추정치	표준 오차	모수 추정치	표준 오차	모수 추정치	표준 오차	모수 추정치	표준 오차
경제적 고려								
현재 혼인상태	.10	.20	-.11	.20	-.13	.20	-.11	.20
배우자 학력	.06**	.02	.05*	.02	.05*	.02	.06**	.02
배우자의 소득	.07	.05	.06	.05	.06	.05	.06	.05
응답자의 임금	-.15**	.06	-.16**	.05	-.18**	.05	-.16**	.06
가족적 배경								
어머니의 학력	-.0	.02	-.01	.02	-.01	.02	.0	.02
아버지의 SEI	-.003	.002	-.004	.002	-.004+	.002	-.003	.002
형제수	.0	.02	.01	.02	.01	.02	.0	.02
능력변수								
afqt 점수	-.05	.06	-.09	.06	-.09	.06	-.05	.06
태도변수								
초산까지 기간	-.003+	.002	-.003+	.002	-.003	.002	-.003+	.002
응답자의 학력	-.05*	.02					-.05*	.02
교육열망			.0	.02				
임금노동 선호도					-.24**	.08	-.24**	.08
노동시장 경험								
현직 재직기간 1-2	-.26**	.10	-.26**	.10	-.26**	.10	-.26**	.10
현직 재직기간 2+	-.60**	.09	-.59**	.09	-.59**	.09	-.60**	.09
현직 전일제 근무	-.44**	.09	-.45**	.09	-.44**	.09	-.43**	.09
경력 단절횟수	.01	.02	.0	.02	.01	.02	.01	.02
노동시장 조건								
실업률	-.02	.01	-.02	.01	-.02	.01	-.02	.01
직업의 특성								
전문기술직	.03	.15	-.03	.15	.05	.15	.0	.15
사무직·판매직	.01	.13	.0	.13	-.05	.13	.05	0.13
서비스직	.49**	.15	.48**	.15	.42	.15	.43**	.15
노조에 의한 임금협상	-.27*	.12	-.29*	.12	.31**	.12	-.29*	.12

주: + p < .1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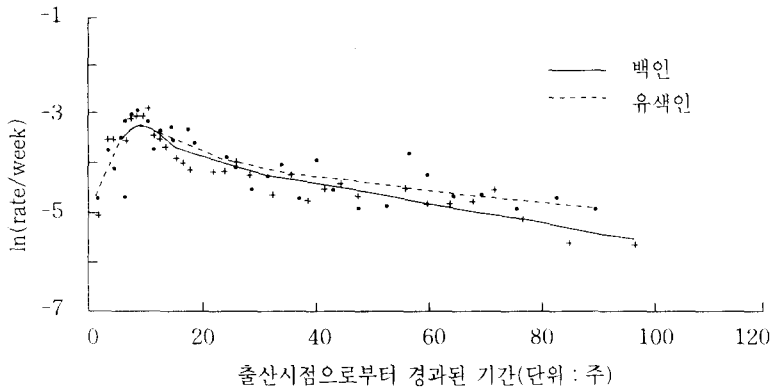
〈표5〉 노동시장 진입모델에서 사용된 설명변수들

	평균 (또는 비율)	표준편차
경제적 고려		
현재 혼인상태 (=1)	.99	
배우자의 학력	13.1	2.2
배우자의 소득 (ln)	9.2	.95
응답자의 전직 임금 (ln)	8.4	2.8
가족적 배경		
어머니의 학력	11.5	2.4
아버지의 SEI	36.31	16.29
형제수	3.36	2.15
능력변수		
afqt 점수 (sd.)	.30	.80
태도변수		
초산까지 기간	29.7	26.6
응답자의 학력	12.5	2.3
교육열망	14.2	2.3
임금노동 선호도 (=1)	.66	
노동시장 경험		
총 경력 0-1	.12	
총 경력 1-2	.11	
총 경력 2+	.77	
전일제 근무비율	56.4	24.1
전직 재직기간 0-1	.33	
전직 재직기간 1-2	.39	
전직 재직기간 2+	.28	
전직 전일제 근무	.61	
경력 단절횟수	4.2	2.5
비취업 기간	63.0	70.3
노동시장 조건		
실업률	8.0	3.2
전직의 직업적 특성		
전문기술직	.19	
사무직·판매직	.48	
생산직	.10	
서비스직	.23	
노조에 의한 임금협상 (=1)	.32	
표본수	880	

5. 첫 자녀 출산 이후의 노동시장 진입

이 절에서는 첫 자녀 출산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출산 당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출산 후

〈그림2〉 첫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전환율의 시간대별 추이



2년까지 기간을 관찰한다. 출산으로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들이 비경제활동에서 경제활동상태로의 내부로의 전환을 겪게 될 전환율을 '전환율 회귀분석'(hazard regression method)으로 분석한다. 〈그림2〉는 출산 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전환율을 3절에서 설명한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할 평균 전환율은 출산 후 10주째에서 가장 높으며 이후 점차 감소한다.

이 그래프에 따라 전환율이 10번째 주를 고비로 상승에서 하강으로 변하는 '기간 의존성'(duration dependence)을 가정하고, 두 구간—0-9.5, 10-104주—으로 나누어진 '구간별 고펜퍼즈 모델'(piecewise Gompertz model)을 실행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특성을 요약하는 통계치는 〈표5〉에 제시하였다. 노동시장 진입과정 분석에서 우리의 표본은 초산 당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던 여성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업에 관련된 변수들—임금, 직업에서 경력, 전일제/부분취업 여부, 직업의 종류, 노동시장 영향—은 출산 전 마지막으로 가졌던 직업의 것을 사용

하였다.

〈표6〉은 노동시장 진입의 전환율이 ‘출산으로부터의 시간의 경과’ 외에 오직 하나의 설명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델들에서 각각의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보고 한 것이다. 즉,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각 변수들의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회귀계수들의 방향은 대체로 〈표2〉에서 제시한 이탈모델의 것들과 반대 방향이다. 응답자 자신이 출산 전에 벌던 수입이 많을수록 출산 후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편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은 낮아진다. 가족적 배경의 효과는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교육을 많이 받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성이 출산 후 일터로 돌아갈 전환율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약간 높다. 응답자의 교육수준, 교육 열망, 임금노동 선호도는 예상했던 대로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 반면에 초산까지 기간이 길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은 낮아진다. 총 노동시장 경력과 현 직업에서 재직기간은 모두 노동시장 진입의 전환율에 비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비취업기간, 실업률, 직업의 종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7〉은 총 노동시장 경력을 노동시장 경험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여 첫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영향을 축약형 모델로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배우자의 소득으로 측정되는 가용한 경제적 자원의 양과 응답자 자신이 일하지 않을 경우의 기회비용은 예상했던 결과를 보여준다.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후 노동시장 진입률이 낮고, 이전 직업의 임금이 높았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노동시장 진입률이 높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달러 상승할 때마다 노동시장에 진입할 전환율은 .84만큼 낮아진다.

뜻밖에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뿐 아니라 교육수준도 출산 후 노동시장 진입 결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금노동에 대한 선호도는 출산 후 노동시장 진입률과 강한 관계가 있다. 총 노동시장 경력이 길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은 높아진다.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1.42 (= $\exp(.35)$)의 상대적인 위험도(relative risk of entry)를 갖는다. 즉,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는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이보다 42% 높은 전환율로 노동시장에 복귀한다. 경력의 단절을 자주 경험했던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전환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 후 시장에

〈표6〉 첫 자녀 출산 이후의 노동시장 진입모델: 무차모형의 상관계수

경제적 고려	
현재 혼인상태	-1.31** (.41)
배우자의 학력	.02 (.02)
배우자의 소득	-.09* (.04)
응답자의 전직 임금	.16** (.06)
가족적 배경	
어머니의 학력	.02 (.02)
아버지의 SEI	.0 (.0)
형제수	-.03+ (.02)
능력변수	
afqt 점수	.13* (.05)
태도변수	
초산까지의 기간	.004* (.002)
응답자의 학력	.03+ (.02)
교육열망	.05** (.02)
임금노동 선호도	.37** (.09)
노동시장 경험	
총 경력 1-2	.29+ (.17)
총 경력 2+	.28+ (.13)
전일제 근무비율	.004** (.002)
전직 재직기간 1-2	.25* (.11)
전직 재직기간 2+	.78* (.10)
전직 전일제 근무	.01 (.08)
경력 단절횟수	-.01 (.02)
비취업 기간	-.0 (.0)
노동시장 조건	
실업률	-.01 (.01)
전직의 직업적 특성	
전문기술직	.08 (1.4)
사무직·판매직	.05 (.15)
서비스직	.25 (.16)
노조에 의한 임금협상	.01 (.09)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 < .10$, * $p < .05$, ** $p < .01$

〈표7〉 첫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 진입모델: 총경력 모델

	모델I		모델II		모델III		모델IV	
	모수	표준	모수	표준	모수	표준	모수	표준
	측정치	오차	측정치	오차	측정치	오차	측정치	오차
경제적 고려								
현재 혼인상태	-1.52**	.44	-1.60**	.44	-1.70**	.44	-1.70**	.44
배우자의 학력	.0	.02	-.01	.02	.01	.02	-.01	.02
배우자의 소득	-.20**	.05	-.21**	.05	-.18**	.05	-.18**	.05
응답자의 전직 임금	.18*	.07	.18*	.07	.18*	.07	.18*	.07
가족적 배경								
어머니의 학력	-.01	.02	-.01	.02	-.01	.02	-.01	.02
아버지의 SEI	.0	.0	.0	.0	.0	.0	.0	.0
형제수	-.03	.02	-.03	.02	-.03	.02	-.03	.02
능력변수								
afqt 점수	.10	.07	.06	.07	.11+	.06	.11+	.07
태도변수								
초산까지 기간	.0**	.0	.0*	.0	.0*	.0	.0*	.0
응답자의 학력	.0	.03					.0	.03
교육열망			.05*	.02				
임금노동 선호도					.34**	.09	.34**	.09
노동시장 경험								
총경력 1-2	.30+	.18	.31+	.18	.31+	.18	.31+	.18
총경력 2+	.33*	.15	.34*	.15	.35*	.15	.35*	.15
전일제 근무비율	.0	.0	.0	.0	.0	.0	.0	.0
경력 단절횟수	-.03	.02	-.03	.02	-.03+	.02	-.03+	.02
노동시장 조건								
실업률	-.02	.01	-.02	.01	-.01	.01	-.01	.01
전직의 직업적 특성								
전문기술직	.23	.18	.19	.18	.23	.17	.23	.18
사무직·판매직	.11	.15	.09	.15	.12	.15	.12	.15
서비스직	.13	.16	.13	.16	.16	.16	.16	.16
노조에 의한 임금협상	-.03	.09	-.03	.09	.0	.09	.0	.09

주: + p < .10, * p < .05, ** p < .01

진입하는 전환율이 낮아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출산 이전 직업의 특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표8〉에 제시한 모델은 모든 면에서 〈표7〉과 유사한 모델이지만 총 노동시장 경

〈표8〉 첫 자녀 출산 이후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전직 재직기간 모델

	모델I		모델II		모델III		모델IV	
	모수	표준	모수	표준	모수	표준	모수	표준
	추정치	오차	추정치	오차	추정치	오차	추정치	오차
경제적 고려								
현재 혼인상태	-1.26**	.43	-1.29**	.43	-1.43**	.43	-1.43**	.43
배우자의 학력	.0	.02	.0	.02	.0	.02	.01	.02
배우자의 소득	-.21**	.05	.22**	.05	-.19**	.05	.19**	.05
응답자의 전직 임금	.12	.08	.12	.08	.12	.08	.12	.08
가족적 배경								
어머니의 학력	.03	.02	-.03	.02	-.03	.02	-.03	.02
아버지의 SEI	.0	.0	.0	.0	.005+	.003	.005+	.003
형제수	-.02	.02	-.02	.02	-.02	.02	-.02	.02
능력변수								
afqi 점수	.09	.07	.08	.07	.11+	.06	.10	.07
태도변수								
초산까지의 기간	-.005*	.002	-.004*	.002	-.004*	.002	-.004*	.0
응답자의 학력	.02	.03					.01	.03
교육열망			.04+	.02				
임금노동 선호도					.36**	.09	.35**	.09
노동시장 경험								
전직 재직기간 1-2	.35**	.11	.38**	.12	.40**	.11	.39**	.12
전직 재직기간 2+	.93**	.11	.93**	.11	.96**	.11	.96**	.11
전직 전일제 근무	-.28**	.10	-.27**	.10	-.28**	.10	-.27**	.10
경력 단절횟수	-.0	.02	-.01	.02	-.01	.02	-.01	.02
비취업기간	-.0	.0	.0	.0	.0	.0	.0	.0
노동시장 조건								
실업률	-.02+	.01	-.02+	.01	-.02	.01	-.02	.01
전직의 직업적 특성								
전문기술직	.16	.18	.15	.18	.18	.18	.17	.18
사무직·판매직	.07	.15	.07	.15	.09	.15	.09	.15
서비스직	.09	.16	.10	.16	.13	.16	.13	.16
노조에 의한 임금협상	.01	.09	-.03	.09	-.01	.09	-.02	.09

주: + p < .10, * p < .05, ** p < .01

력 대신 출산 이전 마지막 직업의 재직년수를 사용하였다. <표8>에서 계수들의 방향과 크기는 <표7>의 모델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이전 직업의 임금의 계수는 크기가 줄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없어졌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효과의 일부가 이전 직업의 재직년수와 부분취업 여부의 효과로 흡수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6. 요약과 결론

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능한 한 많은 여성들이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견해에 암묵적으로, 때로는 명시적으로 동의하면서 여성의 노동력참여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을 통하여,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이 노동시장 참여에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연구가 지향하는 가치의 측면이다. 여성을 노동력 부족기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유틸 인력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연구가 여성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 즉 취업과 가사·자녀양육을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이 여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생산노동의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기에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고용의 단절을 피할 수 있겠는가, 혹은 출산으로 인해 고용의 단절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한 경력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상당한 수의 여성이 일생을 통하여 적어도 한번씩은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노동의 지속과 단절이라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의 지속과 단절의 문제는 여성의 노동시장행위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취업사(work history)와 가족형성사(history of family formation)를 장기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이용하고 시간 또는 기간이라는 측면을 분석의 틀에 포함시킨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의 지속과 단절을 좀더 원래의 개념에 충실하게 포착하였다.

셋째, 여성의 경우 출산이 노동시장행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우리는 같은 결론을 반복해내는 연구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연구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양육이라는 재생산 노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특정한 생애주기에 있는 여성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특정한 생애주기에서 노동의 지속과 단절, 그리고 재취업의 메커니즘은 어떤 특별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기존의 횡단면 자료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는 임금을 관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임금의 영향을 직접 모델에 포함시키는 대신 경력과 교육수준 등의 인적자본 변수들이 시장임금을 결정하고 이것이 의중임금과 비교되어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가정의 모델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자칫 관찰 가능한 거의 모든 개인의 특성을 인적자본 변수로 회귀시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 분석은 직접 측정된 과거와 현재의 임금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제된 상황에서 노동시장 경험과 교육수준 등의 변수들을 좀더 다른 측면에서 파악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 양육기 여성의 노동시장행위를 설명할 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 못지않게 구조적 제약과 개인의 취향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여성 응답자의 임금과 배우자의 소득 못지않게 노동시장 경험과 교육수준, 직업의 종류 등의 변수가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1) 경제적 고려: 배우자와 응답자 자신의 소득으로 각각 측정된 경제적 자원의 양과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치르게 되는 기회비용은 첫 자녀의 출산을 전후한 여성이 노동력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다. 기존의 노동경제학의 연구들이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소득과 임금의 영향의 일반적인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여성은 그들이 일을 그만둘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할 때 남편의 소득보다는 자기 자신의 임금에 더욱 큰 반응을 보인다. 반면 출산 당시 비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들이 노동시장 복귀를 고려할 때는 자신의 과거의 임금보다는 남편의 소득

이 더욱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 2) 가족적 배경: 축약형 모델에서는 응답자의 가족적 배경이 노동시장 진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의 생활양식은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딸에게 내화되고 교육성취와 일에 대한 선호의 형성을 통해서 노동시장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 3) 태도변수들: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노동에 대한 태도와 출산·양육기 여성의 노동시장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혼부터 초산까지 기간은 노동시장 이탈에는 반비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첫 자녀의 출산을 뒤로 미루는 여성은 사회적 노동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면에, 그 기간의 길이가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전직의 경력을 통제했을 경우 — 전체 노동시장 경력이 아니라 최근의 경력을 통제했을 경우 — 에도 부의 관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초산까지 기간의 의미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첫 자녀의 출산을 미룬다는 것은 사회적 노동에 대한 애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의 당면한 경제적 요구가 있는 여성도 첫 자녀의 출산을 뒤로 미룰 것이다. 또, 직업의 성격상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진 여성도 출산을 미룰 것이며 출산 이후 일터로 돌아가는 것도 연기할 것이다.

교육수준과 노동시장참여는 비례하는 관계를 가질 것으로 흔히 예상된다. 인적자본론자들은 교육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임금수준을 인상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노동시장에 있는 기간이 더 길 것으로 예측한다. 사회학자들은 교육(특히 고등교육)은 성역할에 대한 평등주의의 정신을 사회화시키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은 경제적 독립과 지위상승에 대한 의지가 더 크다고 한다. 교육의 의미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교육이 노동시장참여와 비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최근 세대의 여성들에게, 특히 첫 자녀의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같은 힘으로 작용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고등교육

을 받은 여성은 임금노동보다 자녀양육을 더 중요시 여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의증임금은 자녀출산 직후에 좀더 높아진다. 본 분석의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결정에서는 고학력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이탈률이 낮다.

- 4) 노동시장 경험: 본 연구는 노동시장참여의 경험이 출산·양육기 여성의 노동시장 전출입에 크고도 일관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일한 경험이 많을수록 임금, 기술, 지식이 증가한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의 노동시장 경험과 이후의 일에 대한 애착은 비례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때로 일반적인 기술과는 달리 '기업체간, 직종간에 쉽게 이전될 수 없는 기술'(firm-specific skill)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적 전망에 따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의 경력은 노동시장 이탈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는 반드시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본 분석은 모든 모델에서 일관되게 경력 변수들의 강한 영향을 발견하였다.
- 5) 노동시장의 조건: 지역 노동시장의 실업률의 영향은 여성이 경제의 불황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이다. 우리는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이탈결정에 실업률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모델의 결과는 경제의 불황기에 여성은 노동시장에 새로이 참여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6) 직업의 특성: 우리는 직업의 특성(종류)이 노동시장 이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출산 전 마지막 직업의 특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생산직 또는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여성은 전문관리직이나 판매직, 사무직에서 일하는 여성보다 더 높은 전환율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

- Berg, G. and J. Ours(1996), "Unemployment Dynamics and Duration Dependen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4-1, 100-125.
- Bianchi, S. and D. Spain(1986), *American Women in Transitio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Blank, R. (1993), "What Should Mainstream Economists Learn from Feminist Theory?", in M. Ferber and J. Nelson(eds.), *Beyond Economic Man*, University Chicago Press.
- Browning, M. (1992), "Children and Household Economics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 1434-1475.
- Chang, J. (1997), "Labor Force Withdrawal and Entry Surrounding First Childbirth of Married Women", Dissertatio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 Clain, S. and K. Leppel(1996), "Further Evidence of the Added-Worker Effect among White Couples", *De Economist*, 114: 473-486.
- Desai, S. and L. Waite(1991), "Women's Employment During Pregnancy and After the First Birth: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51-566.
- Dewit, D. (1992), "Determinants of the Timing of Labor Force Transitions among Ever-Married, Ever-worked, Women in Canada",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 Ontario.
- England, P. (1993), "The Separative Self: Androcentric Bias in Neoclassical Assumptions", in M. Ferber and J. Nelson(eds.), *Beyond Economic Man*, Univ. Chicago Press.
- England, P. and G. Farkas(1986), *Households, Employment, and Gender: A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View*, New York: Aldine de Gruyter.
- Even, W. (1987), "Career Interruptions Following Childbirth", *Journal of Labor Economics*, 5-2.
- Felmlee, D. (1984), "A Dynamic Analysis of Women's Employment Exits", *Demography*, 21: 171-183.
- _____ (1984), "The Dynamics of Women's Job Mobility", *Work and Occupations*, 11: 259-281.

- _____ (1993), "The Dynamic Interdependence of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Social Science Research*, 22: 333-360.
- Garrett, P., S. Lubeck and D. Wenk (1991), "Childbirth and Maternal Employment: Data from a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in J. Hyde and M. Essex (eds.), *Parental Leave and Child Care*, Temple University Press.
- Garrett, P., D. Wenk, and S. Lubeck (1990), "Working Around Childbirth: Comparative and Empirical Perspectives on Parental-Leave Policy", *Child Welfare*.
- Gerson, K. (1985), *Hard Choices: How Women Decide About Work, Career and Motherhood*,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Goldin, C. (1983), *Life Cyc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Histo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NBER Working paper no. 1251.
- Greenstein, T. (1989), "Human Capital, Marital and Birth Timing, and the Postnatal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3.
- Heckman, J. (1993), "What Has Been Learned About Labor Supply in the Past Twenty Years?", *Journal of Economic Review: AEA papers and proceedings*, 83-2: 116-121.
- Heckman, J. and R. Willis (1977), "A Beta-logistic Model for the Analysis of Sequential Labor Force Participation by Married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27-58.
- Hill, M.A. (1990), "Intercohort differences in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s", *American Economics Review*, 80.
- Killingsworth, M.R. and J. Heckman (1986),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in O. Ashenfelter and R. Lay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Elsevier Science Publishers.
- Klerman, J. (1993), "Characterizing Leave for Maternity: Modeling the NLS-Y Data", *RAND Labor and Population Program Working Paper Series*, 93-34.
- Klerman, J. A. and A. Leibowitz (1990), "Child Care and Women's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American Economics Review*, 80.
- Mayer, K. and N. Tuma (1990), "Life Course Research and Event History analysis: An Overview", in K. Mayer and N. Tuma (eds.), *Event History Analysis in Life Course Research*,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 Mincer, J. (1993), *Studies in Labor Supply*, Columbia University Press.
- Mincer, J. and S. Polachek (1974),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 Women, in T. W. Schultz (ed.), *The Economics of Famil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tt, F. and D. Shapiro (1982), "Continuity of Work Attachment among New Mothers", in F. Mott (ed.), *The Employment Revolution: Young American Women of the 1970s*, MIT Press.
- Nakamura, A. and M. Nakamura (1985), "Dynamic Models of the Labor Force Behavior of Married Women which Can Be Estimated Using Limited Amount of Past Information", *Journal of Econometrics*, 27: 273-298.
- _____ (1991), "Models of Female Labour Market Suppl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ffects of Children", in J. Siegers, J. de Jong-Gierveld and E. van Imhoff (eds.), *Female Labour Market Behavior and Fertility*, Springer-Verlag.
- _____ (1991), "Children and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of Econometric Approaches", in J. Siegers et al. (eds.), *Female Labor Market Behavior and Fertility*, Springer-Verlag.
- Petersen, T. (1993), "Recent Advances in Longitudinal Method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 425-454.
- Phang, H. (1993), "A Dynamic Study of Young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s over the Early Life Course: Cohort Trends, Racial Differentials, and Determinants", (Dissertation) Wisconsin-Madison University.
- Siegers, J. (1991),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Labour Market Behavior and Fertility", in J. Siegers, J. de Jong-Gierveld and E. van Imhoff (eds.), *Female Labour Market Behavior and Fertility*, Springer-Verlag.
- Trussell, J. and T. Richards (1985), "Correcting for Unmeasured Heterogeneity in Hazard Models Using the Heckman-Singer Procedure", *Sociological Methodology*, 15: 242-276.
- Tuma, N. B. and M. Hannan (1984), *Social Dynamics*, New York: Academic Press.
- Wu, L. (1989), "Issues in Smoothing Empirical Hazard Rates", *Sociological Methodology*, 19: 127-159.

abstract

Labor Force Withdrawal And Entry Surrounding First Birth of Married Women

Jiyeun Chang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women's labor market behavior by focusing on a particular set of labor force transitions - labor force withdrawal and entry during the period surrounding the first birth of a child. In particular, this study provides a dynamic analyses, using longitudinal data and event history analysis, to conceptualize labor force behaviors in a straightforward way.

The main research question addresses which factors increase or decrease the hazard rates of leaving and entering the labor market. This study used piecewise Gompertz model, following the guide of the non-parametric analysis on the hazard rates, which allowed relatively detailed descriptions on the distribution of timing of leave and entry to the labor market as parameters of interest. The results show that preferences and structural variables, as well as economic consideration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he labor market behavior of women in the period surrounding childbirth.